

**다가온
미래.
orrow**

**this
is
tome**

다가온

this 다가온

this 다가온

미래

2021. 7. 15. —
2021. 8. 21.

김지수
안솔지

IS 미래

2021. 8. 31. —
2021. 9. 25.

박아람
날씨

IS 미래

orrow

tomorrow

tomorrow

다가온 미래 This is tomorrow

김성희

캔파운데이션 기획이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2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해 기대와 추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대하게 된다. 이런 관심이 전시로 표출된 것은 1956년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 Whitechapel art gallery에서의 전시〈이것이 미래이다 This is tomorrow〉를 들 수 있다.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미술가, 건축가, 뮤지션,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었고, 총 1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전시를 한 바 있다. 당시 리차드 해밀턴 Richard Hamilton 이 전시포스터로 제작한 콜라주 작품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흥미롭게 만드는가?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1956)는 후에 팝 아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작업이 되었다.

이 전시에서 작가들이 다룬 소재는 주로 “남성, 여성, 역사, 음식, 신문, 영화, TV, 전화, 만화, 단어, 오디오, 자동차, 가전제품, 우주”와 같은 동시대의 다양한 대중적 소재들이었다. 이렇게 주변 일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전시는 당시 현대 미술의 엄격함을 배제하고 대중성에 몰입하게 하는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말하자면 대중문화이미지 사용으로 대중예술/고급예술이라는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미술전시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시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참여작가들이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 의 이론을 대중 문화에서 얻은 영감과 다양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표현했다는 점이다. 건축가이자 미술 평론가인 테오 크로스비 Theo Crosby는 이 전시를 통해 서로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의 소통으로 대규모 공동작업을 2년 동안 진행했다. 크로스비는 기획 초기에 이 전시를 위해 미술가, 건축가, 뮤지션 및 그래

픽 디자이너가 12 개 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중요 관점으로 삼고 다른 분야간의 협업을 계획했던 것이다. 각 그룹의 독립적인 작업들이 최종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환경으로 연출하는 방식으로 기획했던 것이다.. 예술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협업은 단순히 협업 과정을 넘어 공간의 새로운 창출을 보여줬다는 점이 65여년 전에 기획된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도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4 이번 캔파운데이션의 전시 <다가온 미래>는 영문 주제로 <This Is tomorrow> 전시 주제와 동일하다. 65년전 그것의 배경은 대중소비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반응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캔파운데이션의 전시 <다가온 미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준비 없이 다가온 미래, 일상의 통제와 그에 따른 상실감, 급격히 변화해 가는 온라인 사회의 실상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캔파운데이션의 오래된집이라는 전시공간에서

1부와 2부로, 각 2인의 작가들의 공간 작업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노력들이 돋보이는 전시이다. 1부에서는 향향과 후각을 다루는 김지수 작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비대칭적으로 적응하는 수용 감각의 신체적 반응을 다룬 안솔지 작가가 참여한다. 2부에는 자신이 직접 채집한 소리와 바로그 음을 채집한 장소성에 대한 해석으로 시간의 교차를 다루는 날씨작가, 시공간 감각을 공간분석과 설치로 풀어내는 박아람 작가가 참여한다.

한마디로 공간 점유에 대한 협업을 토대로 이루어진 캔파운데이션의 전시 <다가온 미래>는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게 된 변화와 그 상황으로 더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가는 시간을 인간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공간 해석과 개입을 통한 다양한 실험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is is Tomorrow

Kim Sunghee

CAN Foundation Planning Director an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6 People always get wrapped up with expectations of the future and fears of the unpredictable. The exhibition “This is Tomorrow” was held at the Whitechapel Art Gallery in 1956 and consolidated such feelings into a single presentation, with artists, architects, musicians, and designers wh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divided into twelve groups. The exhibition poster was a collage work by Richard Hamilton titled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which became a significant artwork in modern art history that ushered in the burgeoning pop art movement.

Participating artists in the exhibition focused on a range of popular themes from the era: “men, women, history, food, newspaper, movies, TV, phone, comic

books, words, audio, automobile, electronics, and the universe.” As such, the exhibition presented images derived from everyday life, which were well-received by the public who lauded the exhibition’s attempt to eradicate the strictness of contemporary art and delve into the popular. In other words, “This is Tomorrow” used pop culture imagery revolt against the existing dialectic of low/high art, thereby cementing the exhibition’s legacy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art history.

7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e exhibition was that its participating artists demonstrated the theory of media theorist Marshall McLuhan by activating inspirations from popular culture through a mutual engagement with diverse external environments. Architect and art critic Theo Crosby worked in communication with artists of disparate genres on large-scale works for two years in preparation for “This is Tomorrow.” While in the early planning stages, Crosby divided artists, architects, musicians, and graphic designers into twelve working groups in order to promote collabora-

tion among different fields, which became a key feature of the exhibition, and later presented the individual artworks of each group within a single area. The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experts of other diverse fields led to the creation of space that transcended mere teamwork. I believe this is still a relevant and timely issue today, despite first being presented 65 years ago, precisely because of this aspect.

8 “This is Tomorrow,” an exhibition currently presented by CAN Foundation at Old House, adheres to the same theme as Crosby’s exhibition held 65 years ago. If the original exhibition was staged as a response to and reflection of the era’s rapid changes in popular consumption, the current exhibition offers artists’ interpretations of online society in the wake of the COVID-19 outbreak for which we were unprepared—although this online existence may well become the future of society—as well as its control over our daily lives and the loss thereof. The current exhibition is presented in two parts at CAN Foundation’s Old House exhibition

space, each differentiating itself through an effort to show the working spaces of two artists. Part one presents artists Jeessoo Kim, who deals with aromas and the sense of smell, and Soljee Ahn, who considers the bodily responses of perception and its asymmetrical adaptation to a new condition called non-face-to-face. Part two features Nalsea, an artist who personally collects sounds and conveys the crossing of time by interpreting the locality of the collected sounds, and Rahm Parc, who expresses temporal and spatial sensibilities through spatial analyses and installation works.

In other words, CAN Foundation’s exhibition “This is Tomorrow,” realized through a spatial collaboration, endeavors to become a stage for diverse experiments in spatial interpretation and interference of time that is rapidly moving to the future due to the inevitable changes and situations wrought by the pandemic, as both human beings and artists.

다가온 미래 :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사이 어디쯤

윤수정

캔 파운데이션 큐레이터

10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꼭 붙어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고, 우리가 세계를 감각하는 영역을 설명한다. 하루 중 우리가 내뿜는 많은 말은 말소리가 되기 전에 자판에 눌러 스크린에 입력되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매시간 디지털 이미지가 되어 SNS에 축적된다. 우리의 말소리는 디지털의 비트(bit) 신호로 전환되어 글자와 이모티콘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공간의 질감은 매끄러운 스크린의 질감으로 치환된다. 오늘날 우리는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양분된 감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메타버스의 확장과 비대면 기술의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어쩌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아는 마지막 세대의 일원일지 모르는 작가들은 온/오프라인의 상이한 감각들을 관찰한다. 작가들은 온라인에서 삭제되거나 오프라인에서 부각되는 감각, 온/오프라인 안에서 전이되는 감각의 심상에 대한 실험을 거듭하고 이 두 영역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사이 어디쯤을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작가들은 캔파운데이션의 전시 11
«다가온 미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감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풀어낸다.

향과 후각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는 김지수(b.1977) 작가는 온라인에서 향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후각에 담긴 공감각적 심상에 집중하며 언어를 통해 상상되는 향,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향을 전시장과 온라인 공간 안에 흩뿌린다. 미술 안에서 후각의 영역을 확

장하고 다른 감각과 연결하려는 작가의 시도인 작품 〈시공향〉(2021)은 한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물질과 비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까지 떠오르게 한다. 김지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가 이름 붙이고 만든 ‘지금 여기의 향’과 ‘다가온 미래의 향’으로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다시금 상상하게 한다.

12 사운드 아티스트 날씨(b.1982)는 다가온 미래라는 주제로부터 떠올린 장소인 갯벌과 그 갯벌의 현재이자 미래인 새만금 방조제에서의 소리를 모아 작업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미래라는 단어에서 역설적으로 자연의 원초적 풍경을 떠올린 작가의 작업은 어쩌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그리고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른다. 작가의 작품 〈Untitled〉(2021)는 얇은 종이와 그 아래의 전선과 스피커들로 구성되어 있고, 10여분 동안 새소리, 알 수 없는 작은 노이즈 등이 재생된다. 작업 자체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작가의 작업은 과거와 미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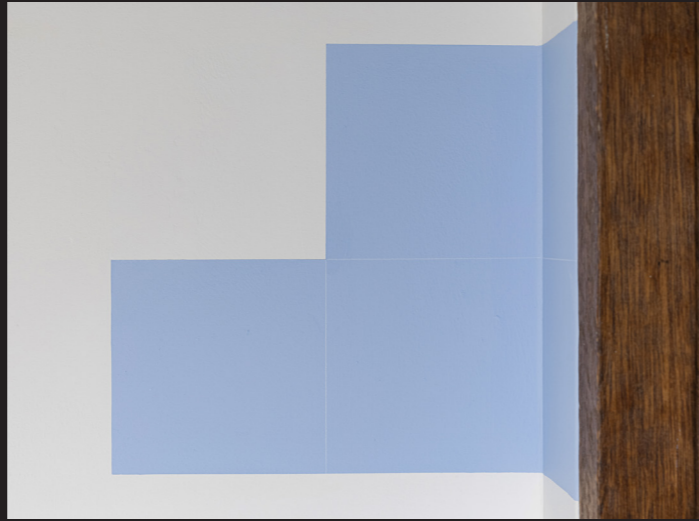


김지수, 이 순간 시공향,
대기 중에 스스로 움직이는 증기와 같은 향,
향, 가변설치, 2021



날씨, Untitled
종이, 구리선, 마그넷, 합판, 소리출력장치, 14분 반복재생,
230×230mm, 2개, 2021

박아람, Blue to come
페인트, 벽에 색연필, 2021



안솔지, 유실1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레, 레진, 자자나무 합판,
101.6×101.6cm, 2021

이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한다.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회화에 관해 탐구해온 박아람 (b.1986)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Blue to come>(2021) 벽화작업을 선보였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열은 블루톤의 페인트와 색연필을 재료로 벽화를 진행하였다. 작가가 선택한 블루의 색과 사각을 단위로 하는 특유의 구성은 물감의 기본 색과 스크린의 색 모드에 공통되는 블루 및 스프레드시트의 행렬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작가는 오늘의 이미

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장 오래된 회화의 방식인 벽화로서 펼친다. 자신만의 흐름과 넓이로 자유롭게 공간을 유연하도록 세심하게 작가는 벽화를 그린다. 작가는 개념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층위를 모두 담아내는 블루톤의 벽화 작업을 시리즈 형식으로 여러 시공간 속에서 이어가면서 가변성과 영속성, 현존성과 장소성을 감각화 한다.

안솔지(b.1990) 작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매개하는 화면, 다시 말해 표면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감지하

16 는 신체 감각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쥐어보면 한 줌 뿐인 그림>(2021)과 <유실>(2021)에서 보이는 매끄럽고 투명한 아크릴 판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만지는 스크린 그 자체이고, 그 위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작가가 온라인에서 경험한 계속 미끄러지는 듯한 신체적 반응들의 기호적 표현이다. 작가는 온라인의 화면을 전시장으로 끌고 와서 그 위에 페인팅을 하고, 화면 안에 모래를 넣거나, 두께를 만들고, 연결시키며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덧입힌다. 작가는 디지털 기술이 지시하는 새로운 존재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이를 입체와 평면 작업으로 재현하며 새롭게 재조합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를 극복하고자 활용되는 비대면 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의 개념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요구했다. 세대시간을 통과하며 겪는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나, 19세기 인상주의 회화가 사진기의 발명과 무관하지 않듯 그 시대의 미적 충동을 추동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이 같은 충동의 발현으로 현실의 변화를 다면적으로 살피면서 현재를 들여다보고 이미 다가온 미래를 마주했다. 수많은 의미와 조형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새로운 환경과 화해하고 다가올 시간을 내다보는 예술가의 실천과 다름없다.

This is Tomorrow:
Online, Offline, and Somewhere Between
Yoon Sujung,
Curator of CAN Foundation

18 The intertwined online and offline paradigms jointly
comprise our environment and delineate the scope of the
sensible world. The countless words we spit out every
day are entered into a digital screen by typing them on
a keyboard before they are heard as sounds. In addition,
the spaces in which we spend time become digital images
that are accumulated by online social networks. Further-
more, the sounds of our spoken words are converted into
electronic signals and displayed as letters and emoti-
cons. Textures of diverse spaces are replaced with those
of smooth screens. Nowadays, we freely move between
the online and offline worlds, where we experience life
through bisected senses and thoughts.

Given the rapid expansion of the metaverse and
the increasing proliferation of non-face-to-face tech-
nologies in daily life, artists may be considered the last
group in society that distinguishes between the online
and offline, since they observe different senses while
working in both modes. Artists repeatedly experiment
with the ways in which some senses are deleted online
but emphasized offline,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mental imagery of the senses. As such, they
actively explore how the two domains can communicate. 19
Living online, offline, and somewhere between these
two states of existence, artists focus on how these worlds
are perceived in “This is Tomorrow” at CAN Founda-
tion’s Old House, expressing their distinct sensations in
unique ways, both online and offline.

Jeesoo Kim(b. 1977), whose practice centers on
scent and the sense of smell, questions how such olfactory
stimuli ought to be presented online. She focuses on spa-
tial mental images of scents and uses language to express
the imagined scents and visually perceived scents in both

the physical exhibition space and virtual online space. In her work *Scent of Time and Space* (2021), Kim expands the scope of the olfactory sense within art and attempts to connect it with other senses. This work calls into question the interaction between material and nonmaterial, which distinguishes offline and online experience. Her works presented here, *The Scent of the Here and Now* and *The Scent of the Future Fallen Upon Us*, allow viewers to reimagine the time and spac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s well as to recall their own memories and emotions.

20

Adopting the theme of the future that has befallen us, sound artist Nalsea (b. 1982) collected sounds from the Saemangeum breakwater, a location that manifests the present and future of mudflats that persist in public memory, and used them as materials for her recent works. Recalling the original scenery of nature paradoxically from the word future, Nalsea demonstrates that distinctions of offline and online or past and future cannot be separated within one space. *Untitled* (2021) consists of a thin sheet of paper with electric wires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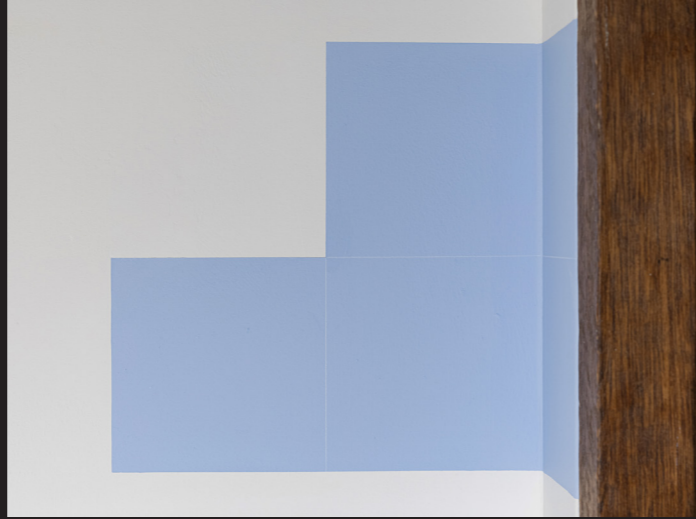
Jeesoo Kim, *This is tomorrow*,
Collected incense,
Dimensions variable, 2021

21



Nalsea,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230 × 230mm, 2pcs, 2021

Rahm Parc, Blue to come, Paint,
Colored pencil on wall, 2021



Soljee Ahn, Loss 1
Polycarbonate, color sand, crystal resin, birch
plywood, 101.6×101.6×4 cm, 2021

speakers underneath that produce small noises and bird sounds whose sources cannot be easily perceived for about ten minutes. The artist's works move between analog and digital and encourage viewers to ponder the appearance of people living in a present that exists between the past and future.

Rahm Parc (b. 1986), who tells the stories of time and space using a range of media, showcases a wall painting titled *Blue to Come* (2021), which uses light blue paint and crayon to cover the surface of a wall. The color and rectangular shape of this work are connected through elements of the online image domain; the pixel, which is the minimum unit of digital imagery, and blue, one of the basic red, green, and blue (RGB) colors used in electronic displays. Although Parc cuts out colors and shapes online, she renders them via wall painting, the oldest method of painting, in the exhibition space. She meticulously produces the wall painting to freely swim in the space, according to her own flow and scale. In the process, she continues the blue wall painting work that is

manifested both online and offline through a series that is situated in another time and space as she presents aspects of variability, continuity, presentness, and locality perceived by the senses.

Soljee Ahn (b. 1990) asserts the screen as a surface that mediates between the online and offline; that is, she focuses on the screen and visually shows the structure of the embodied senses that perceive it. The smooth and transparent acrylic boards shown in *Holding Your and My Handful Images* (2021) and *Loss* (2021) represent the digital screens that we constantly look at and touch, while the images portrayed on their surfaces are symbolic expressions of the seemingly perpetual sliding bodily responses that the artist experiences online. She brings the online screen into the exhibition space, paints on top of it, inserts sand into it, thickens it, and connects it in the process of enveloping it in her distinctive sculptural language. While adapting to the new existential conditions introduced by digital technologies, the artist keenly recombines and recreates them into two- and three-dimensional works.

The current pandemic environment brought on by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as well as the non-face-to-face technologie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it, are changing the concept of online and offline domains while demanding a different use of the senses than that of the previous paradigm. New technologies that emerge and are experienced throughout generational time always foster feelings of insecurity and fear. However, just as the impressionist paintings of the 19th century were not unrelated to the invention of cameras, these new technologies also provide an impetus to the aesthetic impulse of the present era. The participating artists presented here examine the present and its changing reality from multiple angles as expressions of such an impulse and thus greet the future that has already befallen us. Through their individual discoveries of numerous meanings and shapes, these artists reconcile with this new environment and look toward the era yet to come, thereby putting into practice their innate artistic responsibility. 25

전시장소
오래된 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14-3)

주최·주관
(사)캔 파운데이션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전시장소
오래된 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14-3)

주최·주관
(사)캔 파운데이션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전시장소
오래된 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14-3)

주최·주관
(사)캔 파운데이션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다가온

this 다가온

this 다가온

미래

2021. 7. 15. —
2021. 8. 21.

김지수
안솔지

IS 미래

2021. 7. 15. —
2021. 8. 21.

김지수
안솔지

IS 미래

2021.
2021.

김지수
안솔지

orrow

tomorrow

tomorrow

CAN Contemporary Art Museu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창작산실

CAN Contemporary Art Museu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창작산실

변화된 환경에서의 감각
정소영 캔 파운데이션 전시팀장

28 길어진 해와 습한 공기, 체온으로 느껴지는 지열과 같이 시간이 아닌 감각으로 빨라진 계절을 먼저 느끼게 된다. 하지만 경험으로 기억된 감각은 영상을 통한 불명, 랜선여행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의 감각없이도 발현되곤 한다. 그렇다면 비대면과 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코로나19로 인해 막연했던 미래사회는 준비도 없이 다가와 버렸다. 매체 넘어 지식으로만 접하던 기술의 발전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일상에 자리 잡았고 특정 직종에 한정되던 온라인 미팅은 한동안 모든 대면을 대신하는 강제적 수단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확산은 그렇게 일상을 통제하고 접촉을 방해한채 감각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This is tomorrow; 다가온 미래로 번역한 이번 전시는 1956년 영국 화이트채플(Whitechapel Gallery)에서 건축가, 화가, 조각가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대중 소비사회의 도래와 현실에서의 영향을 비평적 시각으로 기획한 전시 제목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준비없이 다가온 미래 사회에서 역병으로 인한 일상의 통제와 상실된 감각, 온라인으로의 변화에 휩쓸리는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작가들과 함께 실험해 보고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삶의 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태를 반영해 온라인 vr전시와 오프라인 전시를 동시 진행했다. 동일한 전시제목으로 1부와 2부에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의 첫 시작은 김지수, 안솔지 작가가 진행하게 되었다.

김지수 작가는 현 시대 비대면 기술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후각감각을 이용한 작품을

진행했다. 장소특정성과 시간성을 갖는 전시 공간에서의 향의 발현은 대면으로의 전시만이 갖는 특징이자 감각의 표현이다. ‘이 순간의 향’ 작품은 전시기간인 7월과 8월의 습도와 공기, 1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집의 서까래와 개조된 벽면을 스치는 태초의 감각을 표현했다. 온라인 VR로 표현되는 또다른 작품 ‘다가온 미래의 향’은 오프라인 전시장의 재현과 복제로서의 작품이 아닌 실제로는 발현되지 않는 가상의 향을 전시했다. 이는 향이라 말하고 후각감각을 이야기하지만 경험의 감각이 발생시킬 수 없는 기억의 감각임과 동시에 언어를 이용한 시감각이기도 하다. 또한 경험의 감각이 발생시킬 수 없는 무경험적 가상의 향이기에 라캉(Jacques Lacan)이 말한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저마다의 창조와 창작의 감각 표현이기도 하다.

안솔지작가는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비대칭적으로 적응하는 수용감각 중

후각을 제외한 시각과 촉각, 청각에 대응하는 신체적 반응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작가이기도 타자이기도 한 사람의 형상을 가진 네개의 판넬위에 각각의 감각의 표현 이미지들은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다’라는 언어적 감각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만지거나 들을 수 없지만 경험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고 또 앞으로도 다가오게 된다면 겪어낼 다양한 감각의 시각적 단일화는 네개의 판넬을 지탱하는 타일박스처럼 파현화된 sns상의 이미지 형태로 표현했다. 안솔지작가의 또 다른 작품 ‘유실 시리즈’는 이미지로 가득한 세상과 반대되는 이미지없는 세상을 나타낸다. 스크린을 상징하는 아크릴에 상징적 기호인 ‘이미지없음’의 아이콘을 삽입해 이미지의 존재를 부정했다. 공업용 아크릴과 상반되는 모래의 중력에 의해 표현된 형상은 태초의 감각과 변이된 감각을 상징한다.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의식과 대상, 표상과 사물에 선행되는 ‘이마주(image)’의 총체에서

작가의 이미지는 어떻게 소비되어질지 작가는
작품으로 질문을 던져본다.

반으로 나뉘어진 전시 공간에 펼쳐진 두
작가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전시장 모습으로의
자연과 스크린을 통해 취합 선택, 변형되어진
이미지의 현실을 반영한다. 작품 이외 완결되는
메세지 없이 어느쪽이 더 친숙하고 선호되는지
관람자의 선택으로 남겨둔 이번 전시는 다가온
미래를 지나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This is Tomorrow Part One
Chung Soyoung
Senior Curator of CAN Foundation

34

We first perceive the rapidly changing seasons not through time, but through the senses—more hours of sunshine, humidity in the air, and ambient geothermal heat that warms the body. However, senses remembered through experiences can manifest even without directly correlating to our sensory perception, much like spacing out while staring at a campfire and online tours. With this in mind, how shall we perceive our current lives wherein the offline and online, and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oexist?

The future society that we vaguely expected has already dawned upon us thanks to the outbreak of COVID-19, despite our lack of preparation for its effect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we have experienced as knowledge have become entrenched in our daily lives as a means to prove ourselves. Furthermore, online meetings that were previously limited

to a specific set of job types have become a universally adopted methodology that has all but replaced face-to-face interactions for quite some time. The spread of an invisible disease continues to control our lives and obstruct all forms of contact, to the point of beginning to limit our senses.

“This is Tomorrow” at CAN Foundation's Old House takes as its point of departure a 1956 exhibition by the same name held at Whitechapel Gallery, which brought together architects, painters, sculptors, and others who collectively adopted a critical perspective regarding the beginnings of a popular consumption society. The current exhibition deploys diverse methods in its attempt to express contemporary attitudes toward changing lifestyles that have resulted from the digital environment. It offers experimental views on the direction of contemporary art that is increasingly aligned with online practices. This reflects the current situation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exhibitions that are held concurrently, a

35

scenario reflected in the online and virtual (VR) presentations of the current exhibition. This exhibition, which is divided into two parts under the same title, begins with presentations by artists Jeessoo Kim and Soljee Ahn.

Jeessoo Kim produces artworks that engage with olfactory sensibilities that are difficult to experience through the remote technology of the present era. The presentation of scents within an exhibition space that is both site- and time-specific necessitates the viewer's presence in order to convey the characteristics and sensual expressions that comprise the artwork. *The Scent of this Moment* expresses the original senses that permeate the renovated walls and rafters of an old house that is almost 100 years old, in combination with the humid air of July and August in Korea. Kim also presents a virtual work in the online space, *The Scent of the Future Fallen Upon Us*, which does not recreate the actual exhibition hall nor represent a digital copy of the original work, but rather proposes a virtual scent that cannot be physically manifested. This work focuses on aromas and conveys a story of scent by generating visual stimuli using

language, while also activating a sense memory that the empirical experience of perception is unable to produce. Since it is a virtual scent that exists independently of sensory experience, it expresses creation and the impression of creative work wherein "signs slide without touching the signifier," as Jacques Lacan stated.

The works of Soljee Ahn enfold the bodily reactions to our visual, tactile, and auditory senses (although not the olfactory sense) that we use to asymmetrically adapt to the new condition on non-face-to-face contact. Presented on four panels shaped like human beings, which may represent the artist as well as other individuals, the artist installs images expressing each sense according to the sensual linguistic state called "directly experiencing changes." The time has come wherein we must experience things that cannot be felt or heard. If this continues to develop into the future, the visual uniformity of otherwise diverse senses will be expressed as images on social networks, fragmented like the tile box that supports Ahn's four panels. The artist's *Loss* series portrays a world devoid of

images, as opposed to a world filled with them. An icon signifying “no image present” is inserted into the symbol of a screen to negate the existence of images. By expressing form through the gravity of sand, rather than the acrylic used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hn conveys the primordial senses generated during our cre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such senses afterward. These works enable the artist to ask how images ought to be consumed as a whole “image” that precedes consciousness, as well as its target, symbol, and object, as stated by Henri Bergson.

38

The artworks of two artists installed in the bisected exhibition space reflects the nature of the exhibition hall and the reality of images that are collected, selected, and deformed through the screen. It is up to the audience to decide what they find more familiar or what they prefer, without imposing any conclusive messages that are external to the works themselves. Thus, viewers are encouraged to consider the ways in which to best accept the future that will happen, rather than that which has befallen humanity.

39

이 작품은 지금 여기의 ‘향’과 다가온 미래의 ‘향’에 대한 표현이다. 현재 우리 코앞의 냄새는 어떠한가? 이 냄새는 과거의 냄새가 축적되고 현재의 냄새와 포개어져 미래의 냄새로 상호작용하며 나아간다. <오래된 집>은 후각으로 인지하는 공간이며 가상의 냄새와 상호작용하는 상상의 냄새이자, 다가온 미래의 냄새의 시공간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온 향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만 개인의 후각적 상상력에 남아 미래의 닮은 향으로 증폭되어 연결된다.

특정한 공간의 냄새를 채집하고 상상한 이 공간에서 관람객과 감각으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공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작가가 만든 향이 펼쳐진 공간에서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작품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향’으로 교감하는 작품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두 작업은 표면 생성기 시대에 재현성이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대한 미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확히 서술하자면 관객들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 - 이야기와 표면을 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꺾어보면 한 줌 뿐인 그림 (2021)은 비대면에 적응해나가야 하는 신체와 수용감각이 극단적이고 비대칭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작가의 상태를 반영한다. 차단과 봉쇄를 구멍내려 하는 디지털 기술이 삶에 투입될 수록 새로운 존재 조건에 적응해야 함을 피부로 체감했다 (여기서 '피부로 체감한다'라는 워딩 역시 표면이 신체적 영역으로 인정됨을 보여준다). 가령 시각, 청각, 촉각 등 제한된 수용 감각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발전하는 양상 말이다. 시대의 유속은 때때로 지나치게 빨라서 표면들이 야기한 거리감 없음, 多-시점, 多-위치와 무한한 접속에 대한 습관을

지금 여기의 향과 다가온 미래에 마주한
후각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눈과 손가락 끝과 귀에 체화하게 된다. 그러한 신체적 존재 조건들을 매일 매순간 겪는 유저의 입장에서, 또 그것들을 활용하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미시적인 양상을 과포화 표면의 현 상황과 대조하여 본다. 보는 행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만지거나 들을 수는 없어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은 점차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사운드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소리에 대한 욕망은 시각적 표면만큼이나 강력해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과 감각적 경험에 정복당한 사람으로써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자성적인 표면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네 개의 아크릴 판은 지배적인 3개의 감각 - 시각, 촉각, 청각 - 에 대응하는 작가의 신체적 반응을 담은 표면이고, 그를 지탱하는 타일 박스는 보편적 취향을 빚어내는 SNS 속 표면을 차용하였다. 각각의 판들은 개별적으로 직립하는 형태에서 선반이나 상자를 가지면서 다양한 오브제로 표면에 대한 부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서로 투명한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개별 표면이 모여 어찌면 신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유기적인 이음새는 그러나 언제든 납작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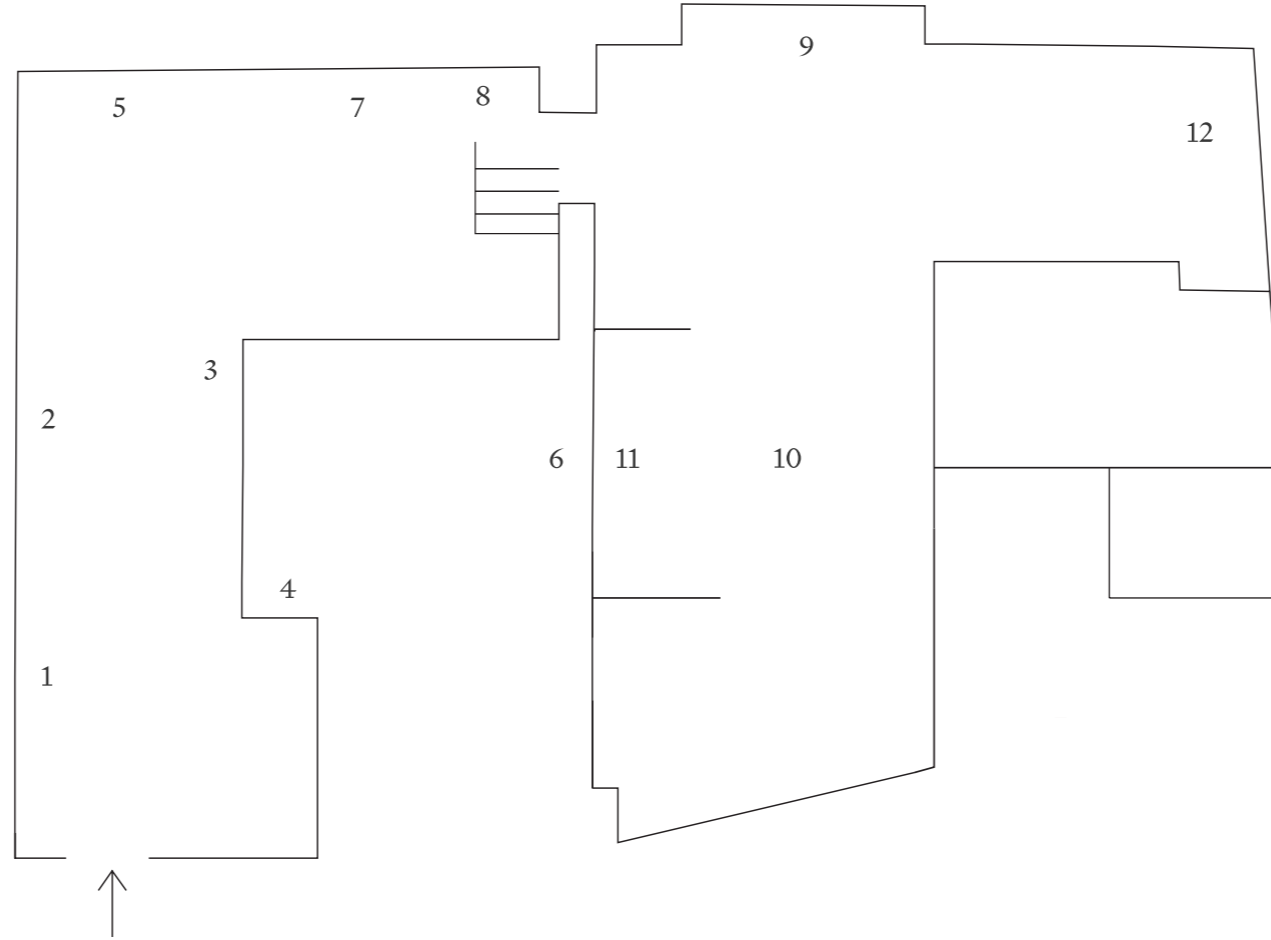
유실 시리즈 (2021)는 다가온 미래에
 이미지와 표면이 가득하다면 그와 다른 상황, 혹은
 표면이 길을 잃고 유동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거나, 무수한 이미지들이
 만든 표면 지도에서 길을 잃은 듯한 형태, 표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상황 등 양적으로 거대한 표면이
 만드는 이마주-적인 풍경에 집중한다.

복층PC 표면 위에 UV 인쇄나 아크릴로
 ‘이미지 없음’ 혹은 ‘제한된 이미지’를 지시하는
 디지털 아이콘을 페인팅하고, 각 PC의 단차로 인해
 생기는 구멍에 색모래나 가루류를 넣는다. 색모래가
 형성해내는 이미지는 근원이 없다. 결격된 표면을
 대하거나, 엄청난 양의 표면들을 마주하고 감각한
 작가의 반응일 뿐이다. 색모래를 쏟아 놓으며 특정

이미지와 표면이 온전히 수용되는가를 수행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이기에 적당한 필터링을 통해 정보의 결을 일정 부분 탈락시키고 축소시키는 지점을 인지한다. ‘세계가 이마주의 총체’라면 작가적 태도에서 바라보는 이 근원 없는 모래의 성은 관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촬영될 것 - 즉, 어떻게 다른 표면으로 재생산되고 소비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예술하기’를 복기하게 된 물질의 평면이다.

김지수

1. 이 순간-시공향: 후덥지근하고
짊조름한 호흡의 말, 향,
가변설치, 2021
2. 이 순간-시공향: 여기 시공간의
100년된 바람냄새, 향,
가변설치, 2021
3. 이 순간-시공향: 대기 중에
스스로 움직이는 증기와 같은
향, 향, 가변설치, 2021
4. 이 순간-시공향: 채집한 틈새,
향, 가변설치, 2021
5. 이 순간-시공향: 날씨의 맛에
따라 변화하여 스며드는 내음,
향, 가변설치, 2021
6. 이 순간-시공향: 채집한 지붕,
향, 가변설치, 2021
7. 이 순간-시공향: 채집한 가루,
향, 가변설치, 2021
8. 이 순간-시공향: 이 냄새 조각을
코로 쏘아 보내는 공기, 향,
가변설치, 2021



안솔지

9. 유실 1,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래,
레진, 자작나무 합판,
101.6×101.6×4cm, 2021
10. 쥐어보면 한 줌 뿐인 그림,
아크릴에 UV인쇄, 타일,
아크릴, 전사지, 철사,
가변설치, 2021
11. 유실 2,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래,
레진, 자작나무 합판,
101.6×101.6×4cm, 2021
12. 유실 3,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래,
레진, 자작나무 합판,
101.6×101.6×4cm, 2021

대기 중의

사프론

염색의

증기

와

향





날씨의
변화하여
마의 따라
스며드는
내음



산사

조각

은

산사

조각





김지수, 이 순간 시공향, 대기 중에 스스로 움직이는 증기와 같은 향,
향, 가변설치, 2021



안솔지, 유실1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레, 레진, 자자나무 합판, 101.6×101.6cm, 2021

58



김지수, 이 순간 시공향, 이 냄새 조각을 코로 쏘아 보내는 공기,
향, 가변설치, 2021

59



안솔지, 유실 2,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래, 레진, 자작나무 합판, 101.6×101.6×4cm, 2021



김지수, 이 순간 시공향, 채집한 지붕,
향, 가변설치, 2021



안솔지, 유실 3,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색모래, 레진, 자작나무 합판, 101.6×101.6×4cm, 2021



김지수, 이 순간 시공향, 후덥지근하고 짝조름한 호흡의 말,
향, 가변설치, 2021



안솔지, 쥐어보면 한 줌 뿐인 그림,
아크릴에 UV인쇄, 타일, 아크릴, 전사지, 철사, 가변설치, 2021



다가온 this 다가온 this 다가
 미래: 2021. 7. 15. IS미래: 2021. 7. 15. IS미래
 2021. 8. 21. 2021. 8. 21. 2021. 8. 21.
 orrow tomorrow tomorrow







This is tomorrw; 다가온 미래 1부 워크숍

일시: 2021년 6월 10일 오후 2시

장소: 캔 파운데이션 회의실

참여자: 정소영큐레이터, 김지수 작가, 안솔지 작가

This is Tomorrow Part 1 Workshop

Date and time: 2:00 p.m. on June 10, 2021

Venue: CAN Foundation meeting room

Participants: Senior Curator Chung Soyoung, and artists

Kim Jeesoo and Ahn Soljee

정소영 큐레이터님: 저희 this is tomorrow 한국어로는 다가온 미래 워크숍 진행 순서는 기획자인 제가 전시기획이랑 작가님들에게 연락을 드린 이유를 설명드리고 나서 작가님 한분 한분이 돌아가면서 왜 이 전시 기획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셨고 참여에 응답해 주셨는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작가님 한 분씩 전시에서의 작업 내용과 방향성, 현재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모두가 이 전시를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것과 기대하고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전시기획 의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캔 파운데이션은 매년 대주제 아래 전시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주제는 This is tomorrow로 한국어로는 다가온 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작년하면 코로나19를 빼놓고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상이 마비되었었는데 일상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계 안에서도 그 변화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화상회의나 온라인 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VR, AR도 나온다고들 많이 이야기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생각만 했던 미래가 다가와 버린 것이죠. 이것이 This is tomorrow. 다가온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를 전시 주제이자 그 자체를 제목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Senior Curator Chung Soyoung: CAN Foundation has held planned exhibitions by setting overall themes annually. This year’s theme is This is Tomorrow. When we think of last year (2020), we are reminded of how our lives have become paralyzed to the extent that we cannot possibly explain it without mentioning COVID-19. However, it was not only our daily life but also the modern art world that changed. Videoconferences and online exhibitions, of which we had only imagined before, existed before as well, and we had heard about virtual reality (VR) and augmented reality (AR) being commercialized. However, the future we had only thought about but had not prepared for has fallen upon us because of COVID-19. Because this is the future that has fallen upon us, we set the grand theme of This is Tomorrow for this year’s exhibition.”

사실 전시명 자체는 1956년 영국 화이트 채플(Whitechapel Gallery)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산업화시대로 변한 시대와 미술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전시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전 전시의 비평적 시각이라기보다는 이미 다가온 미래 사회에서 현대미술의 방향을 작가님들과 함께 실험하고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삶의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미술로서 표현할 것인가를 전시로 나타내고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현대에서 각각의 미술관과 미술을 하는 기관들이 가진 고민은 오프라인 전시를 어떻게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였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통제해야 하고 사람이 올 수 없는 현상이 한 일 년 정도 지속 되었었는데, 특히 완전 close를 해야만 했던 시기에는 아예 전시관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예정되어있던 전시들은 있었고 이런 전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이때 나온 대안이 다른 기관들과 동일하게 온라인이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기술의 완벽한 구현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온라인 전시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언제까지 미디어 아트나 영상으로만 전시를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장르의 미술은 온라인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기술자체가 좀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비 방법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술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에 대한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변화된 삶의 태도에 가상 현실의 모호성과 실재와 허구 사이의 현재를 전시장 전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었을 때 생각했던 방향은 소유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약간 쇼룸 컨셉으로 전시를 처음에 해보자 했었는데요. 약간의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 현실에서 경험하지만 꾸며진 공간의 전시장 자체는 진짜인 것인가 가짜인 것인가하는 맥락을 가져갔었고요. 그 기간은 가볍지만 조금 진지하게 가져가자면 현존하는 물질이 아닌 무형의 시간과 감성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양가의 확장가능성을 조금 실험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무형의 시간과 감성의 소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SNS 활동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SNS에서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동시에 연출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과연 이 현실과 가상 사이에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형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SNS의 모습은 현실인 것인가 가상인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나의 현실 사이인 것인가? 혼돈이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전시로 표현해보자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주제와 생각을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작가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온라인과 비 온라인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처음에 나뉘었어요. 기술적인 면을 배제한 채로.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전시장에 갔다, 우리가 전시장에 보고 왔다는 형식이 될 것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경험했었다는 비대면으로서의 존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자체를 전시장에 가져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었을 때, 온라인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지만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물질성은 없어도 되겠다는 맥락으로 이어졌었고 거기서 비물질로서 가져갈 수 있는 미술 장르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 전시에서는 향으로써 후각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음 전시에서는 사운드 아트를 비물질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향과 맞을 수 있는 물질성, 오프라인에 보여줄 수 있는 현존할 수 있는 시각적 비주얼로서의 미술 장르는 또 무엇일까 하다가 첫 번째로는 일차원적으로 형태가 보이는 설치미술을 다음 전시에는 회화장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르이기도 해요. 특히, 아직도 회화는 저는 아우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미지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전시장 안에 회화를 과연 온라인으로 표현했을 때 어떨 것인가? 물질로서 표현된 회화 그리고 비물질로서의 표현된 사운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르가 결정되고 나서는 그동안 봐 왔던 전시들 그리고 같이 전시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윤수정 큐레이터와 여러 가지 작가님들 작업을 계속 봤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전시들을 꽤 있었어요. 장르는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시는 많았고, 직접 질병으로 가져가는 전시도 있었고 아니면 너무 또 시각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시각의 변화에 대해 기술적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형태는 좀 피하고 삶에서 변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김지수 작가님 안솔지 작가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김지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향으로 작업하는 대표적인 작가님이시니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작가님 후보 중에 계셨던 것 같고요. 향하면 딱 떠오르는 작가님이 몇 안 되셔서 김지수 작가님이 떠올랐고 김지수 작가님이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하셨을까 쪽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향에 민감한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왔을 때 흠냄새 그리고 따뜻한 빨래에서 나는 보송보송한 향들 그래서 항상 집안 장소별로 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에 좀 민감해서. 사무실 공간 안에 나는 냄새랑 집에서 나는 냄새가 분리되었으면 좋겠고 자는 방과 내 서재가 달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작가님이 다른 전시에서 했던 말 중에 냄새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서재에 대한 향의 기억으로 작업이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여행할 때 한 가지 향수만 써요. 그 여행지에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향을 맡으면 여행했던 장소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건 분명 과거 나의 기억 안에 존재하는 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맡고 있고 사용하고 있을 때는 현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향이 어떻게 미래로서 변화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해주신 작가님이 계셔서 꼭 한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제안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전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서를 쓸 때 윤수정 큐레이터가 도대체 몇 번을 쓰는 거냐 할 정도로 한 4~5번 고쳤거든요. 이런 말을 쓰면 괜찮을까? 저희

기관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모르시지만 또 워낙 이런 작업 의로는 많은 제안을 받으셨을 것 같아서 과연 시간이 되실까? 걱정했는데 너무 흔쾌히 빨리 뵙자고 하셔서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전시할 때 생각이나 결이 좀 맞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작품이 좋으신 작가님들은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 전시가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의 결이 맞을 때 서로가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솔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전시를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 윤수정 큐레이터가 굉장히 잘 아는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윤큐레이터가 추천을 했을 때 봤던 레퍼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보안여관 전시때 식물을 전시하셨는데 전 여기서 약간 유레카였던게 사실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나를 한국인으로 묶는 사람이 감사할만큼 나를 그냥 동양인이라고 묶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키가 들어가게 되고 막 온갖 나의 걸치레로 누군가에게 설명이 되는 게... 분명 한국에서도 그렇게 묶여있었겠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너무 쉽게 타자가 나를 함부로 나를 어딘가의 소속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에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란 식물들을 ‘내가 기르던 것’이라는 이름으로 한군데에 모았는데 그 모아져 있는 작품의 연출방식이 약간 온실 속 한 공간에서 자란 것처럼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했던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의 작품으로 표현 해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20대 때는 내 몸이 되게 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몸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피부 정도는 사실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런 피부 질환 같은 것에 대해 고민을 한적은 있지만 정말 상처가 나기 전까지 몸을 그냥 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피가 흐르고 내 살결이 뜰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을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몸을 타자화시켰던 것 같아요. 소중히 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존재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치고 나서야 “아 몸이라는 것이 되게 약하고 내가 케어를 해줘야하고 나를 챙기는 것은 나 밖에 없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몸의 타자화와 질병 같은 경우를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거거든요. 질병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아토피가 있는데 피곤하면 나타나요. 애(아토피)는 항상 나에게 보유하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피곤할 때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살다가 드러났을 때만 인지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질병과 관련되었을 때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 내 몸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다른 많은 것들로 파생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가 알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과 존재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 라는 귀결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또 작업으로서 표현하시는 작가님들이셔서 “아 그러면 이런 비주얼 설치미술로서 안솔지 작가님이 표현 연출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김지수 작가님은 하시던 향에 대한 작업을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펼쳐 볼 수 있겠구나”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두 분 다 흔쾌히 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네요

물론 중간중간에 듣기는 했지만, 작가님들이 전시를 왜 수락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인은 가나다순을 좋아하니까 김지수 작가님 먼저.

안솔지 작가님: 영어로 쓰면 제가 A여서 먼저겠지만 여기는 한국이라서

김지수 작가님: 왜 수락을 하게 됐냐? 왜보다는 이제 수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소영 큐레이터님: 진짜요?

김지수 작가님: 처음 기획안을 봤을 때 작품이 떠오르는 그런 기획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독창적인 것을 좋아해요. 또 전시를 많이 하다 보니 특별한 기획안이 좋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참여했던 전시 키워드와 달랐고 내용이 현재 시대 상황과 잘 맞아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 온라인, 이런 내용이 소유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것인데 ‘향’이 과연 이 전시의 내용과 맞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보존과학자 C의 하루» 전시에서 제 작업에서 ‘냄새’에 대하여 비물질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영상대담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했던 내용과 연결된 지점이 있어요. 보내주신 기획 글에 소유할 수 없는 물질의 향에 관한 내용에서 저는 ‘향이 과연 소유할 수 있을까?’ 혹은 ‘정말 비물질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기획자는 향은 소유할 수 없는 물질, 비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저는 분자 알갱이로서의 향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전에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처럼 향은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측면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수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획 내용에서 ‘감성이 공존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것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는 저의 작품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 감각,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후각’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놓지 않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후각을 작품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작품 이야기를 할 때 향이 과거의
특정한 기억을 되살리고 추억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이
자신의 내면의 감성과 현시대 공존하는 감각하고 쌓여서
미래의 새로운 감성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유에서 전시를 수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rtist Kim Jeessoo: I am a person who thinks we can possess the scent of molecular grains and that they are the material. On the one hand, scent can neither be touched nor visualized. Nonetheless, and ironically, I was deeply pondering about how it would coexist in the current era and move to the future if I were to express it as olfactory artworks. We smell scents that exist now, but when they accumulate with emotions coexisting in the current era, memories, and the sensibility inside oneself, wouldn't they manifest into the new sensibility of the future? I wanted to create pieces with such thoughts in mind.”

안솔지 작가님: 저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경험이 별로 없는 신진이니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전시 기획의도를 보고 나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수락을 한 거고요. 저도 표면으로서 몸의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제 작업이 평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시리즈를 한 번 잠깐 놓아두고 현재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 있었는데 질병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에 관한 이야기도 나도 언젠가 할 이야기가 있고 하고 싶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한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미지와 표면에 대한 언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더 발전될지 혹은 발전이 멈추고 다른 기술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 과도기라고 생각 되는데 이 과도기에서 이미지, 시각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많고 포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소영 큐레이터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딱 한 달 전에 만났었잖아요. 두 작가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Artist Abn Soljee: I believe we live in a period of transition where we do not know how the language of images and surfaces used currently will further develop in the future or change with other technologies. Artists working with visual images in this transitional period seem to have reached the state of saturation and are planning their future direction. Given such an era, I also wanted to voice my thoughts and, thus, accepted the offer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7월 15일 날 오픈하기 전에 어떠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솔지 작가님부터

안솔지 작가님: 작업을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판재 흔히 말하는 건축에 쓰이는 액상판 렉산판으로 평면 작업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크릴판 네 개가 스텐딩 구조물로 제작되어 바닥에 직립하고 있는 조각 형태로 가고 있어요.

88

그래서 첫 번째 액상판 렉산판 같은 경우는 이미지 표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대에 반응을 하는 나의 신체적 감각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액상판 렉산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없음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지 없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특히 SNS나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 없음은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고 엄청난 오류라고 다들 간주를 하는데 이미지가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미지 없음이 위험이라면 지금 현재 저도, 질병도 사회에서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인지가 되는데 이미지 없음이 시각 작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나 고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시각에 대한 베이스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해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늘 제작업이 그랬듯이 전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보유 하고 있었지만 보유함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있던 상태, 그것에 대한 맥락 선상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작을 한참하고 있고 회화 페인팅 같은 형태이지만 설치나 조각 그 모든 것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했듯이 카테고리라이징 된 것, 그리고 경계에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작업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미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미지가 꼭 재현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행하게 될 거 같고요.

89

아크릴판 4개 스텐딩 구조물로 되어있는 작업은 기획 의도와 맞물려 있긴 한데 비대면과 디지털 기술이 삶에 투입이 될수록 저희는 새로운 조건들이 생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체감하게 되는 체감의 존재를 극대화하는 게 피부로 와 닿는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피부로 와 닿는다’는

언어적 표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조건들, 존재 조건들을 감각 할 수 있을 때 수용하는 감각 중에서 시각 촉각 그리고 청각 정도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런 양가적인 면들을 파해쳐서 신체적 반응 시각, 촉각, 청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시각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소영 큐레이터님: 그러면 김지수 작가님

김지수 작가님: 저는 현재 기획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공간에 존재하고 나는 이런 시공간을 감지하는 어떠한 작품을 표현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게 되었어요. 저는 작업을 할 때 항상 출발점이 내가 감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영 선생님께서 체화된 감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언어가 딱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어린 시절부터든 현재든 제가 느낀 체화된 감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저 자신이 이미 인지하는 혹은 유전된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감각을 가지고, 다른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을까?’, ‘그들도 나와 비슷한 감각을 느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저의 작품의 전체적인 작업의 내용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에 내가 느낀 감각 즉, 후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작품으로 발현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상해온 작업이 있어요. ‘꼭 전시장에서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현장에 오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우리가 냄새 또는 향이라고 일컫는 이 화학 알갱이를 전송할 방법이 발명 되면 모를까, 현재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시각적인 드로잉이나 회화 작품으로 표현할 때 색채나 선이 들어가게 되겠죠. 작업해보니, 그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만난 후에나 어떤 공간을 다녀와서 인상적인 냄새를 언어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꼭 작업으로 해야겠다 보다는 그 과정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 냄새가 떠오르면 냄새에 관한 인상을 언어로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저의 텍스트들을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냄새를 VR(Virtual

Reality) 온라인으로 전송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제가 '후각과 기억 시간성에 관한 연구'라는 소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의 작품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 해주셨듯이 저의 기억에 오래 남는 가장 특별한 최초의 냄새는 저의 아버지의 서재냄새거든요. 아버지의 체취와 고서들의 냄새가 섞인 서재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었고, 지금도 그 공간에 가면 위안이나 영감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각의 기억에 대한 것, 그게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냄새지만 이 순간에도 그 냄새를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이러한 맥락과 저의 작품들을 통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후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텍스트와 현장에서 실제로 말할 수 있는 현존하는 공간의 화학 알갱이들이 사람의 콧속으로 모락모락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실재하는 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캔 파운데이션'의 오래된 집 공간에 처음 미팅을 갔을 때 느꼈던 냄새에 대한 언어와 함께 저희 전시가 아주 후덥지근한 장마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주변의 날씨, 온도, 습도 이런 그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하나는 '대기 중의 스스로 움직이는 범람하는 풀들의 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후덥지근하고 짝조름한 호흡의 말', 또 하나는 '돌 사이사이에 흘러내린 개천에서 진동의 내음'. 이러한 형식의 텍스트들을 그 공간 어딘가의 냄새를 채집한 제가 쓰는 도구와 함께 전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소영 큐레이터님: 저희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각자의 작업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용하는 감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하는 걸 말 그대로 어떻게 작품을 연출해내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표현적인 차이가 될 수 있는데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감각에서의 공통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후각으로서 표현될 수 있고 물론 후각 안에도 어쨌든 어느 정도 오브제가 놓여져있거나 아니면 글귀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시각도 배재될 수는 없으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시각으로 봤던 것과 촉각으로 느꼈던 것이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가 작품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형태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 안에서 표현되는 것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출을 감각의 본질을 다룰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성파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인식하는 것에 대한 변형된

모습으로서의 조금은 임의적 일 수도 있는 형태로서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들과 액상판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전시를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기대했던 바를 전시에서 서로가 어떤 걸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가? 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직 온라인 전시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까지 기술적으로 훌륭한 현 상태가 아니어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그나마 가장 현실을 조금 많이 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R 전시인데 그냥 VR 전시가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으로 옮긴 재현 복사로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애초의 기획 의도 자체가 온라인으로서 변화된 환경 안에서 온전히 전시를 즐길 방법을 찾는 거고, 앞으로 미술이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다른 방안을 찾자고 했을 때 선불리 생각했던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의 차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오프라인은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에는 존재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표현하면 단순히 복사나 재현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같은 전시를 봤을 때 공감성은 있고 하지만 각각 삭제와 첨가는 분명 큐레이션이 들어가야 해서 선택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자체로써 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 하려고 했고요. 거기서 조금 재미를 추구해보자는 면이 지금 1차 워크숍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작품이 놓여진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 왔을 때는 하늘일 수도 있고 전시 공간의 땅일 수도 있고 손잡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시장 안에 있지만 감상의 대상이 아닌 것에서 작품과 연관 지음으로 나오는 색다른 작품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김지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하늘에 마우스 포인트가 있으면 하늘을 찍었을 때 거기에 맞는 작품으로 나레이션이나 작품 설명이 나오게 되고, 전시장에 오는 사람은 증정을 통해 하늘을 언젠간 봤었을 것이고 작품인지 모른 채로 지나갔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향을 내가 맡았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정도의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안솔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차적으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아왔는가에 대해 히 우리가 스크린을 터치한다고 했을 때 접촉하게 되는 촉각에 대한 표현으로써 설치물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누군가는 만질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만졌을 때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정소영 큐레이터님: 사실 촘촘하게 있는 이미지를 보고 습관적으로 약간 엄지랑 검지를 피고 있더라고요. 확대하고 싶어서. 이런 감각들 실제로 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앞에도 해보게 되는 그런 것을 해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에서는 어차피 온라인 이미지는 왜곡이 있다고 보잖아요. 이미 뷰파인더에 담겼을 때는 일차원적인 왜곡이 들어가고 내가 재편집했을 때 이차원적 편집이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삼차 편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애초에 삼차 편집을 통한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 정말 현미경으로 크게 확장되거나 아니면 완전 작게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전시품 일부만이 보여지게 되거나. 내가 VR을 보면서 작품을 클릭했을 때 지금 VR 안에 있는 오브제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확장되거나 축소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형태로서 온라인 전시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단의 몫은 관객 스스로가 정말 누군가는 “난 온라인 전시로 충분했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아, 나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작품을 마주하는 것이 좋다.” 또 누군가는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둘 다 해서 너무 좋다.” 각각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가 우리가 엄청난 전시를 만들자는 맥락은

아니었고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큐레이터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우리가 전시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 때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전시로써 표현해 보자고 하는 맥락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왔던 관객들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작품을 바라보는가를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제일 큰 목표이긴 해요. “아, 나는 오프라인 전시를 되게 선호하는 애였구나.” “나는 온라인 전시를 되게 만족하는 애였구나.” 아니면 그 스스로 찾지 못했던 또 하나의 지점을 누군가가 찾아준다고 하면 되게 반가울 것 같기도 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땠을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땠을까? 라는 것을 누군가 찾아주는 것도 되게 고마울 것 같고 그런 모두가 참여하는 작가와 큐레이터와 방문하는 관객도 모두가 다 한 번쯤 확인하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혹시 바라시는 것이 있으신지? 관객이 이 전시에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을 꼭 느껴줬으면 좋겠다하는.

김지수 작가님: 일단 관객들이 그 냄새를 ‘쿵쿵’ 잘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긴 하겠지만 조금 진한 농도의 향을 퍼트리려고 해요. 작가가 그 공간에 대해 연상해서 만든 향을 관람객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잘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그

“Senior Curator Chung Soyoung: As a curator and an artist, I think it would be good to express the problems we must think about at least once when planning exhibitions and creating artworks through an exhibition. I hope the audience visiting the exhibition would realize something themselves through the artworks they see in this changed environment.”

“Artist Kim Jeesoo: People say that the sense of smell is the most marginalized sense because it is invisible, intangible, and nonmaterial. However, I hope the audience experiencing my artworks would realize that the sense of smell is an instantaneous sense that can be saved in our memories. That is, I hope they realize that smells can recall other memories and that the sense of smell is not a marginalized sense, but one that can be recognized even if it is invisible to us.”

향에 대한 작가의 상상력, 이 공간과, 이 작품에 대하여 관람객의 자신만의 후각 저장소에 간직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들어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감각이 있고 공감각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감각이 전환하거나 떠올리는 연상의 작용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작가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냄새를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감각 중에 가장 먼저 느껴지고 가장 오래 무의식에 저장될 수 있지만, 다른 감각에 비해서 가장 소외된 감각이 후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소위 ‘비물질’이라고 하지만 이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는 ‘냄새가 이렇게 훅 다가오는 즉발적인 감각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 기억에 저장될 수 있겠구나’. 또, ‘이 냄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하기 어렵지만 이러하나 후각의 특징들을 인지하고, 더 이상 소외된 감각이 아닌 중요한 감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rtist Abn Soljee: I hope people visiting the exhibition will think, at least once, about what images and surfaces they are creating. We live in an era where it is too easy to create surfaces by taking photos using a camera. I hope my exhibition arouses thoughts about our body as a condition of human existence a bit more sensitively and preciously so that the way our off-line body senses the world survives without becoming dull in the digital language system wherein images we produce are connected like a plant’s roots.”

정소영 큐레이터님: 좋네요. 작가님

안솔지 작가님: 저는 자신이 어떤 이미지, 어떤 표면을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너무 쉽게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그것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한 번 인지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식물의 뿌리처럼 엄청 막 연결되어서 특히 디지털에서는, 언어처럼 체계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나의 오프라인 신체가 감각하는 법을 둔화시키지 않을까 조금 더 예민하고 소중하게, 인간은 어쨌든 존재적 조건이니까 신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환기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소영 큐레이터님: 오늘 너무 훌륭하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전시장소
오래된 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14-3)

주최·주관
(사)켄 파운데이션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전시장소
오래된 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14-3)

주최·주관
(사)켄 파운데이션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전시장소
오래된 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14-3)

주최·주관
(사)켄 파운데이션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다가온

this

this

미래: 2021. 8. 31. — 2021. 9. 25.
박아람
날씨

IS미래: 2021. 8. 31. — 2021. 9. 25.
박아람
날씨

IS미래: 2021. 8. 31. — 2021. 9. 25.
박아람
날씨

orrow

tomorrow

tomorrow

CAN Contemporary Art Network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CAN Contemporary Art Network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변화된 시공간에서의 인식
정소영 캔 파운데이션 전시팀장

104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함부터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를 기술의 발전은 한 쪽에 담아낸다. 세계화를 넘어서 실시간 공유를 통한 국경의 경계와 타임라인을 넘나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온라인의 세계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의 현존을 잊게 하거나 혼돈하게 할 때가 있다. 축소하거나 혹은 무한대로 펼쳐지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 안에서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인식될까. 1부가 변한 환경에서의 감각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2부 전시에서는 확장되고 축소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살아가는 현재에서 박아람은 변한 시공의 감각을 전시장에 풀어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이러스처럼 마음과 기억으로 시간의 공간과 기억의 공간 저편에 떠다니는 색을 다 잡아 오래된 집 벽면에 배치한다. 박아람 작가의 2020년 〈타임즈〉 전시에 보였던 색인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이면에 떠다니다 2021년 〈Blue, Blue〉 개인전으로 그리고 오래된 집의 전시공간에 또 다른 블루로 벽면에 스며든다. 사물의 재현이나 복제에 대한 작가의 변형으로 탄생했던 기존 회화의 확장이라는 틀조차 벗어나 작가만의 세계에서의 색상은 그 공간안에서 시간을 담아 탄생한다. 작품의 원전성을 상실해 가는 시대에서의 유일한 작품의 아우라는 지금, 여기라는 현존성일 것이다. 전시 기간 이후에는 소멸하고 기록으로만 남겨질 박아람의 벽화 작품 〈Blue to come〉은 공간안에서 끊기고 이어지듯 흐르는 선을 따라 현존성의 아우라를 공간 전체를 통해 뿜어낸다.

날씨작가는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현재라는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서 과거를 회상하게 됨을 표현한다. 서울의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 떠 있는 밤섬을 지날 때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덴마크의 스반홀름(Svanholm)을 지나는 순간의 작가는 과거의 모습을 띤 그대로의 자연공간에서 선명한 미래를 떠올렸다. 그것은 실재적 경험이자 작가의 소망이었을지 모른다.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이자 소망하는 미래. 작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 잊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해 낸다. 새만금의 방조제와 해창갯벌 그리고 수라갯벌 등에서 직접 채집한 소리와 함께 들리는 음은 채집한 장소에 대한 작가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해석이자 청음될 공간의 현재에서의 과거에 대한 추억이다. 또한 어떤 소리가 채집되고 어떤 소리가 창작 가공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는 특유의 몽환적 리듬감으로 듣는 이의 시간을 미래로 옮겨놓는다.

사운드 아트 장르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인 이런 시간의 혼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을 넘어서 과거에서 미래, 다가올 미래의 현재에서 과거로의

이행을 통해 반복되는 역사와 변화될 역사를 함께 표현한다. 음원에 원전성을 갖는 사운드아트의 특성을 살려 출력장치에서의 노이즈나 공간의 잡음이 삭제된 채 들리는 온라인에서의 음원은 현장의 공간성과 시간성이 배제된 음원만의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1부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오프라인 전시공간을 메우는 현존의 공간성을 어떻게 인식할지. 공간성이 사라진 온라인에서 현존성에 대한 시각과 청각에 대한 감각만이 주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두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This is Tomorrow Part Two
Chung Soyoung
Senior Curator of CAN Foundation

108

Technological development enables the simultaneous embrace of a single minute that is indistinguishable to the naked eye as well as an immense span of time as large as the universe. The online world wherein national boundaries and timelines are traversed through real-time sharing that transcends globalization, and where past and present coexist, allows me to forget or be confused about where I really am in the present moment. If such changes of time and space can be so easily diminished or expanded, how might our present be recognized? If part one of the exhibition contended with the role of sensory percep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part two activates our awareness of this infinitely expanding and shrinking time and space.

In the present world where we live freely and enjoy the effortless ability to cross the boundaries of online and offline existence, Rahm Parc depicts the temporal and spatial senses

that have become altered within the exhibition space. Just like a virus, which is invisible yet real, Parc catches colors that float on the other side of the spatiotemporal memory with her heart and imprints them upon the Old House's walls. The colors presented in her exhibition "Times" float across invisible space and manifest as another shade of blue in her solo exhibition "Blue, Blue" (2021), penetrating the walls of the Old House. Here, Parc distances herself altogether from a framework of expanding her existing paintings that were previously created by deforming objects through reappearance or reproduction, since the colors unique to her world are produced by containing time within the given space. We live in a world where the originality of artworks is lost, and thus the aura of an artwork can only arise through the presentness of the here and now. The wall painting *Blue to Come*, which will be removed at the end of the exhibition and only remain as a record, exudes this aura of presentness throughout the entire space along a flowing line, as if connected and disconnected.

109

Nalsea expressed how the future can be discovered from past memories while reflecting on the past in the near future that we call the present. The moment she passed through the Bamseom Islets, floating between the numerous forests of buildings in Seoul, and Svanholm, which preserves its historical grounds in Denmark, the artist recalled a clear future amid such natural spaces that retain their past shapes. This may have been her real experience, or perhaps it reflects a future to come or that which she longs for. Through such experiences, the artist remembered the Saemangeum land reclamation initiative that she had forgotten about. Musical notes, heard among the sounds she collected in places such as the Saemangeum breakwater, Haechang mudflats, and Sura mudflats constitute the artist's interpretation of the future of such places as well as her memories of the past that can be heard in the present. The confusion of time and space brought about by the advent of technology expresses repeated histories alongside histories that are set to change by shifting the order of past, present, and

future; instead of moving from the past to the future, she begins with the present of the near future and moves backward toward the past. Both collected and processed sounds, which can be difficult to distinguish, have a particular dreamlike rhythm that alters the time of the listener into the future. Sound sources found online, including those wherein the noise of the output device and space are deleted in order to emphasize the originality of sound art deriving from its source, deliver another message that is unique to each sound source without any spatial and temporal indicators of its locality.

Part two of the exhibition is held simultaneously online and offline, as was part one. I hope this arrangement will provide sufficient time for everyone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o interpret the offline exhibition space filled with spatial existence and the online world devoid of spatial characteristics, leaving only visual and auditory senses with which to perceive presentness.

작업에서 들리는 소리는 2021년 7월 22~23일에 새만금 방조제와 해창갯벌 그리고 수라갯벌등에서 녹음했습니다. 시간은 마음이 쓰이는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닐까? 하는 흐릿한 개념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재생되는 순간. 무질서한 공기의 압력변화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춘다고 그 음악의 시간적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의 멜로디나 리듬을 기억하고, 또 듣고 싶다는 마음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다가온 미래라는 전시 주제를 들었을 때 갑자기 변화된 환경이나 사회의 분위기보다 제가 경험 했던 장면 몇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널 때 보이는 밤섬은 뚜렷하고 마치 미래의 시간을 보는 듯 합니다. 또 덴마크의 스반홀름이라는 공동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개의 집을 이은 오래된 집에서, 여기를 기억할 몸과 마음들을, 집에서 집으로 흐르며 스스로 시간이 되는 그림을 생각한다. 미래가 지금을 기억하듯, 다가올 Blue를 생각한다.

〈Times〉(2020)에서 선보인 그림 속 작은 파랑의 행렬은 〈Blue, Blue〉(2021)에서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가, 그것을 기억하거나 예지하듯 〈Blue to come〉(2021)으로 오래된 집에 잠시 머문다.

얼핏 벽면에 투영된 빛이나 그림자 같기도 하고, 사라지듯 스며들거나 갓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 옅은 파랑의 행렬이 집의 틀을 따라 상(像)과 물(物) 사이를 흐르듯 걸음과 마음을 옮기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Blue 그 자체가 된다

그냥 내버려 두는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지나갈 때도 선명한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십몇년만에 찾은 새만금은 “간척토지에서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같이 점점 흐릿해지는 시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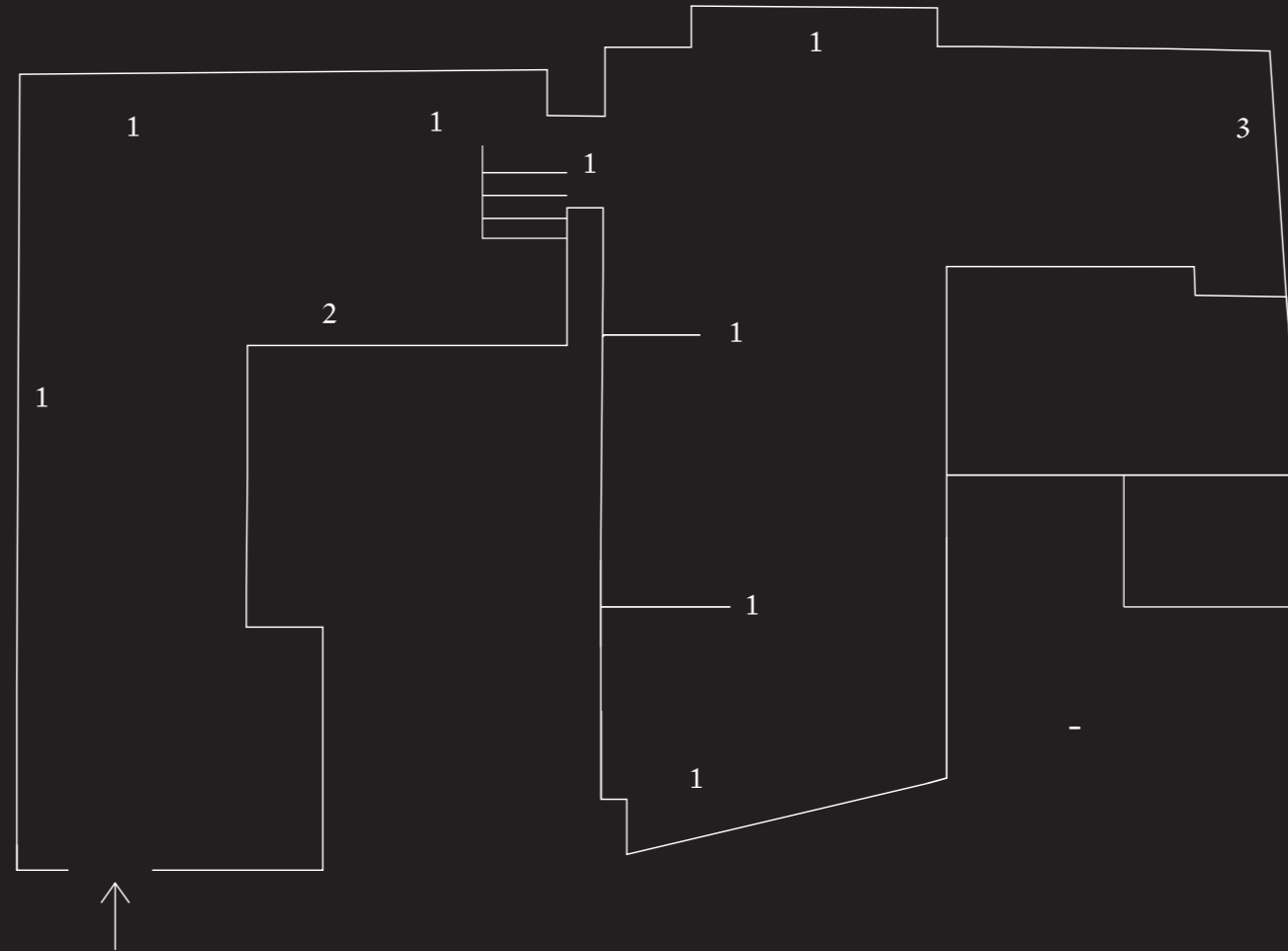
개인전 <타임즈>, 전시 전경, 금호미술관, 2020 ©박아람
Solo Show <Times>, Kumho Museum of Art, 2020 ©Rahm Parc

- 1971년 김재지구에 9.6km의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 발표
- 1987년 11월 군산과 부안 사이의 서해안 간척사업을 가리켜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을 공식 사용함
- 1987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발표
- 1991년 11월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시작
- 1998년 4월 27일 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등을 우려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 진행
- 1999년 5월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단이 공사 중단을 결정함
- 2001년 5월 25일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재개함
- 2003년 3월 28일 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 시청앞 광장까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한 삼보일배
- 5월 31일 수행을 진행
-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마지막구간 연결
- 2007년 12월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33.9km), 방수제(만경강 60km, 동진강78km) 및 배수갑문 2개소
완공
- 2012년 12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3년 9월 12일 새만금 개발청 출범
- 2018년 10월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 2018년 12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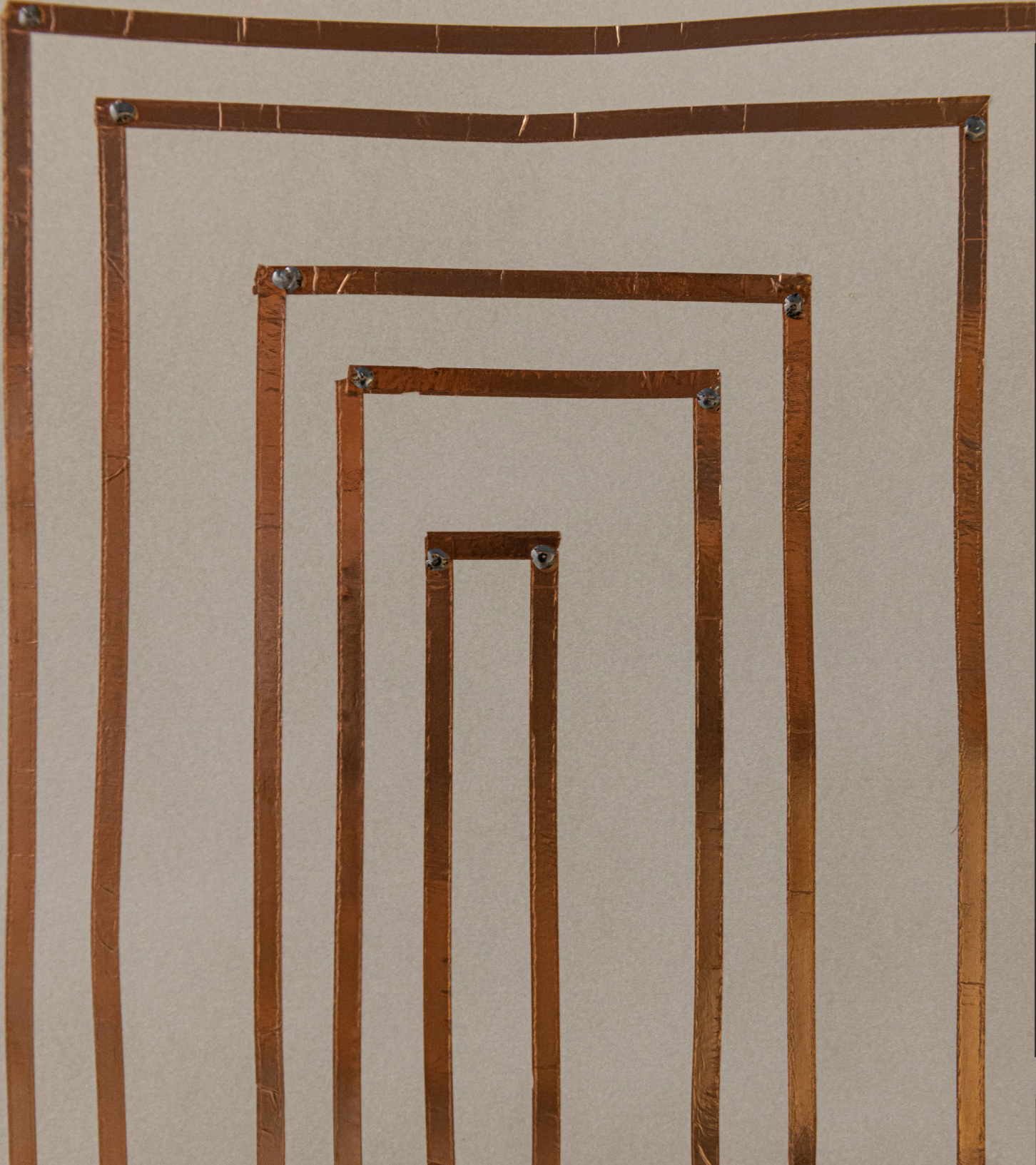
개인전 <블루, 블루> 전시 전경, 더레퍼런스, 2021 ©박아람
Solo Show <Blue, Blue>, TheReference, 2021 ©Rahm Parc

- Nalsea
- 2.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230×230mm, 2pcs, 2021
- 3.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788×1097mm, 2pcs, 2021



- Rahm Parc
- 1. Blue to come, Paint, Colored pencil on wal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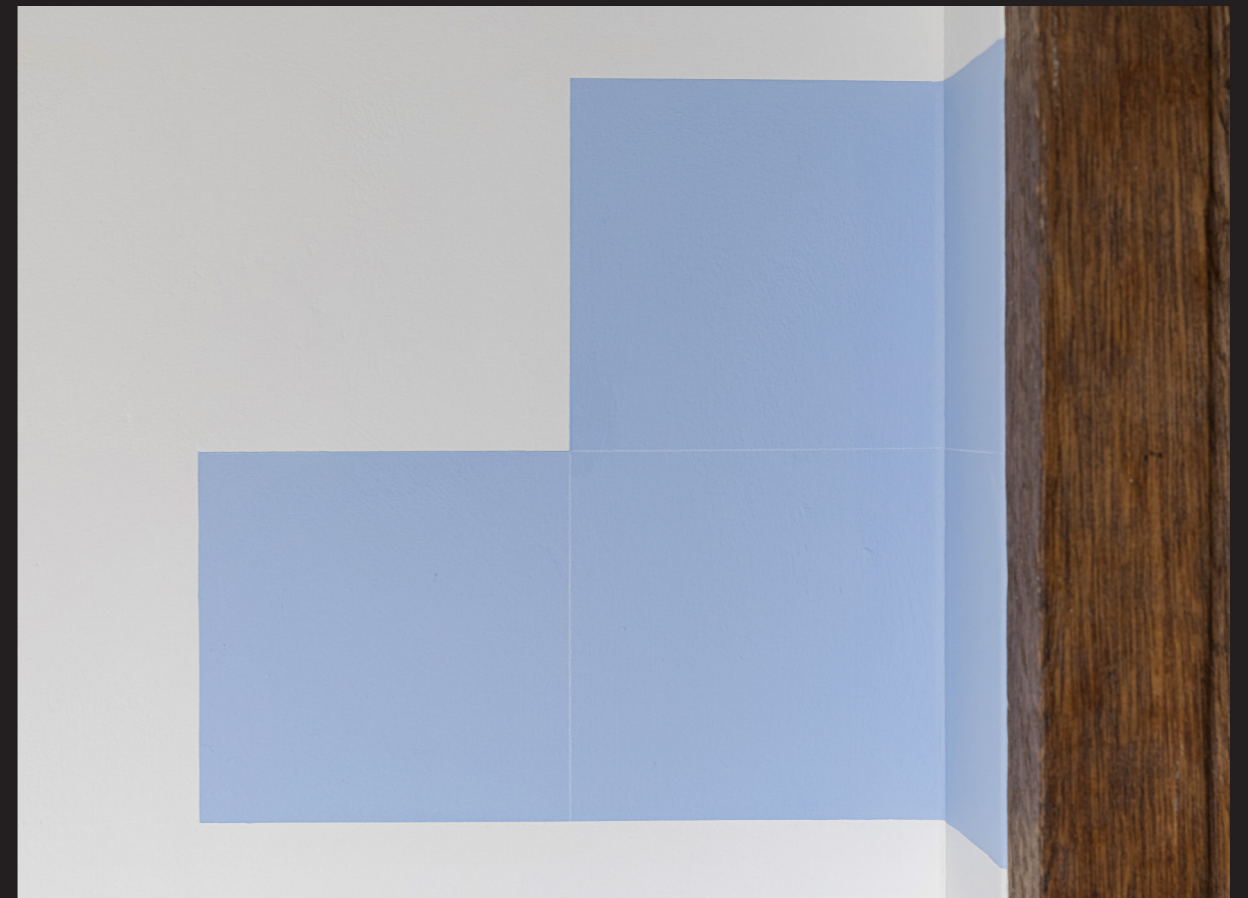








Nalsea,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230×230mm, 2pcs, 2021



Rahm Parc, Blue to come, Paint, Colored pencil on wall, 2021



Nalsea,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788×1091mm, 2pcs, 2021



Rahm Parc, Blue to come, Paint, Colored pencil on wall, 2021



Nalsea,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788×1091mm, 2pcs, 2021



Rahm Parc, Blue to come, Paint, Colored pencil on wall, 2021



Nalsea, Untitled, Paper, Copper tape, Magnet, Plywood,
Sound playing machine, 14min loop, 788×1091mm, 2pcs, 2021



Rahm Parc, Blue to come, Paint, Colored pencil on wall, 2021



다가온 this다가온 this다가
미래. is미래 is미래 is미래
orrow tomorrow tomorri

KT
6110

수업시간







This is tomorrow; 다가온 미래 2부 워크숍

일시: 2021년 8월 11일

참석자: 박아람작가, 날씨작가, 캔 파운데이션 정소영 전시팀장,
윤수정큐레이터

장소: 온라인

This is Tomorrow Part 2 Workshop - Date and time: 3:00

p.m. on August 11, 2021

Participants: Artists Rahm Parc and Nalsea, CAN

Foundation Senior Curator

Chung Soyoung, and Curator Yoon Sujung

Venue: Online via Zoom

정소영 전시팀장님: 저희가 처음에 이번 전시를 기획했던 이유가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상황들, 상황들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시 제목을 <다가온 미래>라고 잡았는데 <다가온 미래>는 사실 준비하지 못했던 미래가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특히, 이 미술계 안에서는 이 다가온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시도에서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 방향성으로는 처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어요. 다가온 미래 안에서 변화되었던 가장 첫 번째는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차이였기 때문에. 대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오프라인 장소에서 전시를 말하는 거였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통제 속에서 온라인 전시로 많은 전시들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기존 전시와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온라인으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회화. 회화는 과연 온라인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는 회화를 온라인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의 변화에서 회화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양가적인 생각들을 조금 담게 되었고요.

회화와 사운드의 만남을 추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사운드는 그 자체로 오리지널리티, 꼭 대면이 아니어도 되는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사운드 자체는 꼭 그 공간에 가서 들어야하는 것인가?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음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운드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운드 아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온라인과 비온라인, 대면과 비대면에서의 장르 자체로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가님들에게 드렸던 제안에서는 불완전성의 사운드 아트의 특성인 오브제가 없는 비물질적인 이행으로서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물질적인 표현으로서 회화로 나타내고 싶었고 비물질적 표현으로서 사운드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작가님들이 주제 안으로서 생각했던 각자의 바를 표현하다 보니 그것들이 각자 내가 생각했던 <다가온 미래>와 나의 작업 방식이 어떻게 맞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미래 혹은 지금 내 작업에서의 발전 상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처음 의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Senior Curator Chung Soyoung: At first, I pondered the most about problems of the online and offline worlds. Because the first change that occurred once the future has fallen upon us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the face-to-face naturally meant exhibitions held at off-line sites as we had usually conducted. On the other hand, the non-face-to-face forced me to ponder on ways to express existing exhibitions and artworks online as many exhibitions switched to the online format because of the forced control over our lives following the pandemic. “How can paintings indeed be expressed online?” was the first question that came to mind. When a painting is expressed online, how would people perceive it? “Furthermore, how can paintings adapt to the changes in technology?” were the ambiguous thoughts that came to mind. The reason I came to seek the meeting of paintings and sounds was because I thought sounds are original and a genre that can be expressed even non-face-to-face. Do sounds always have to be listened to in that space? Can’t the music and sound sources we hear be interpreted as sounds? What is sound art? With all these thoughts, I came to consider the online and off-line, and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as a genre in themselves.”

그런 시도에서 박작가님을 특히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작가님이 그 동안 해오던 작품들을 쭉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작업이 회화의 발전된 형태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예전의 회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박작가님은 작품을 표현하는데에 있어서 작가님 스스로를 약간 컴퓨터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뭔가를 보고 그것을 재현하기보다 내가 하나의 필터 장치가 되고 그것이 프로그램처럼 생각을 해서 표현한 수단으로서 작가님의 작품을 표현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회화 장르로서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일단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 자체가 충분히 공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께 처음 연락을 드렸던 거였고요.

날씨 작가님 같은 경우 사실 개별적으로 전시에 참여하신 전시를 아직 못 봤지만 이전에 다른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을 봤었는데 다양한 매체와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가님이겠다. 그리고 그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작가님이 그 동안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맥락보다는 결과물만 봤을 때는 다른

사운드 아트에서 나올 수 있는 소스들은 아니고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연락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오래된 집이라는 100년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잘 풀어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서 표현해봤을 때 보는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온라인에서의 작품 표현은 이렇구나, 오프라인 작품 표현은 이렇구나, 내가 선호하는 작품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 해볼 수 있는 전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작가님 먼저 전시 기획 의도를 처음 들었을 때 왜 수락을 하셨는지, 이후 작품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아람 작가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계기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시대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 역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전시 참여 제안을 받았습시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오래된 집의 전시장이 두 개의 집을 이어서 하나의 집으로 개조한 건축물이라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제 작업은 늘 전시장 공간과 면밀하게 연동되는 편이어서, 오래된 집의 공간 구조와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미팅 때 전시장을 둘러보며 공간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때 ‘오래된 집’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여쭙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채로 비워져 있었던 이 집을 동네 사람들이 오며가며 ‘오래된 집’이라 불러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보통 어떤 집이 오래 비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몇 가지 단서와 상상으로 거기에 사연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외의 뭔가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둘러보면서 예전에는 여기에 어떤 존재가 살았을까, 어떤 모습의 집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한옥 공간에서 전시해본 적이 없었기도 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스스로 무척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정소영 전시팀장님: 네, 그러면 전시 참여를 수락하신 다음에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지금 어떠한 작품으로서 전시를 참여하려고 하시는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tist Rahm Parc: We have encountered a new era because of COVID-19. I don’t know if it is really because of the pandemic, but it feels as though the future has suddenly fallen upon us. In this regard, I wanted to seek artworks that express these times as an artist.”

“Artist Rahm Parc: We have encountered a new era because of COVID-19. I don’t know if it is really because of the pandemic, but it feels as though the future has suddenly fallen upon us. In this regard, I wanted to seek artworks that express these times as an artist. What they want to accomplish through the exhibition Artist Rahm Parc: In the world we live in nowadays, our senses and cognition are mixed with the virtual and real because of the culture that various technologies have brought about. I was wondering what it would be like if I could reflect these changes using painting as a medium and if a form of perspective were possible. This question combined with my ardent desire to deal with images in the heart to produce the current works. Everything is turned into data nowadays. Hence, I wanted to produce artworks that reflect the logic that has been made possible in this era yet are not dependent on it, and leave the space open. I hope that people who view my artworks feel free.”

박아람 작가님: 제 작업은 단발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림들이 연결되며 고유의
 시공간을 지어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이번
 전시에서도 색을 통해 이어가며 다루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봄에 <타임즈>(2020)라는 개인전을 선보였고, 그
 전시에서 선보인 그림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올해 초여름
 <블루, 블루>(2021)라는 개인전을 선보였는데, 색을 행렬의
 색인으로 사용하는 제 그림의 질서에 따라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상태를 의미하는 벽화가 두 곳으로 분할된 전시
 공간에 각기 다른 스케일로 동시에 펼쳐져 있었고, 특히 그
 중 한쪽은 전시 공간의 구조에 따라 마치 사물처럼 꺾이면서
 점차 연장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전시가
 끝나며 잠시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통과해와서, 다시금 또 다른 공간인 오래된 집의 벽면을
 타고 흐르는 상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전시에서는 옅은
 파랑색을 사용해서, 마치 벽면으로 스며들거나 떠오르는
 것처럼,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림을 미래 시점으로부터
 조용히 불러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처럼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래된 집에 올 때마다 몸과

마음에 공간을 새기고 작업을 놓아보는 상상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작업에 이르게 되었는데, 분할이 많은 공간이어서
 쉽지 않았던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한편 몸이 없는 온라인
 감상 환경에서 이 그림은 현실 속에 실제 존재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가상의 그림인지 모호한 느낌을 주면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흐뜨립니다.

정소영 전시팀장님: 네, 그러면 날씨 작가님으로 넘어갈게요.
 날씨 작가님께서서는 기획 의도를 처음 듣고 왜 이 전시에 참여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그때 이후에 어떻게 작품이 발전되고 지금
 어떠한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 작가님: 저는 이제 우선 제안을 주셨을 때, 우선 제안을
 주신 것 자체가 고마웠고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생각을
 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전에 공간을
 가봤으니까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옥을 개조한 것이기도 하니까. 어떤 공간은 되게 위압감이
 들기도 해서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내가 뭘해도 공간이 잘 받아주고 잘 묻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승낙하고 나서
 뭘 할지 고민해보자 이런 태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전시를 어떻게, 작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면서 새만금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새만금은 제가 십 몇 년 전에, 환경 문제 때문에 제가 밴드 활동을 할 때, 초대받아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놀러가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갯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방조제가 생기고, 갯벌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시 제목이 <다가온 미래>라서 그 전에 제가 여행하거나 어떤 순간에 느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서강 대교 지날 때 밑에 있는 밤섬을 보면 미래의 모습이 나한테 온 것 같고 시간성이 되게 헛갈리는 경험을 했었고. 또 하나는 덴마크에 있는 수반헬름이라는 공동체에 갔을 때,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기로 약속한 숲이 있는데 그 숲을 지날 때도 뭔가 시간적으로 되게 묘한 느낌을 들었어요. 이것이 내가 미래에 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같다는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새만금도 나한테 비슷한 느낌으로 그 당시에 나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Artist Nalsea: I think I felt some comfort with the exhibition space because I had visited it earlier. Some spaces feel overpowering that I cannot hold exhibitions there, but I came to think that my artworks would fit well in the exhibition space of the Old House because it is a remodeled traditional Korean house. That is why I came to accept the offer to do the exhibit there.”

그리고 사운드나 음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생각 해왔던 것인데 음악이 재생이 되면 그 음악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소리라는 것은 진동이고 공기가 압력이 변화하는 건데 그 압력이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음악이 멈춰도 시간이 멈춘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음악의 멜로디나 리듬을 기억하고 또 내가 듣고 싶다는 마음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음악의 시간적인 성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만금에 가서 내가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전시장에 틀어서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것을 체험하게 해보자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만금을 다시 가서 필드 레코딩을 하고 또, 제가 몰랐던 과거의 신문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야기들을 다시 수집하고 들으면서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기도 했어요.

녹음은 주로 새만금 방조제가 있으면 방조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바깥쪽은 바닷물이고 안쪽은 만경강이랑,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는 담수가 있는데, 거기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죽은 고기가 많이 둥둥 떠 있고 그래요. 그 주변 갯벌 총 3군데에서 녹음을

했고 방조제 앞에서도 녹음했고, 방조제 배수관문이라고 해서 물을 하루에 두 번씩 통하게 하거든요. 너무 오염이 심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 뒤에 보이는게 사운드 테스트하려고 만들어 놓은 스피커 인데, 우선 제가 필드 레코딩한 사운드들은 비교적 소리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작업한 음악 같은 경우는 저음 쪽에 소리가 너무 클 때, 디스토션이(distortion) 심하더라고요. 일킬로 헤르츠 이상에서 소리가 잘 들리고 그 이하는 볼륨을 필터를 걸어서 에너지를 낮춰야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작업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정소영 전시팀장님: 네, 그 날씨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작품의 단계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새만금 이야기 쪽 해주셨고, 지금 그 작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스피커 재질로 종이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큰 전지 사이즈 두 개와, 저희한테 전에 말씀해주셨던 작은 사이즈 작품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날씨 작가님: 알겠습니다.

원래는 지금보다 더 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전지 사이즈여서 이 사이즈로 한 거고요. 종이를 스피커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면 사람들은 그동안 학습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는구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거 같은 거예요. 제가 전지로 표현하고 싶은 건 공기의 압력 변화가 생기는 것, 그 변화는 귀로도 전달이 되지만 피부에도 전달이 되니까 새만금에서 녹음한 소리가 장소적인 특징이 그 안에서 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종이에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라고 인식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종이를 선택했어요.

종이의 일부분을 잘라서 밖으로 빼는 것은 물이 바다랑 강물이랑 왔다갔다 흐르는데 지금은 방조제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큰 종이에서는 제가 해찬 갯벌이랑 수라갯벌에서 녹음한 엠비언스(ambiance) 소리가 한쪽에서 날 것이고, 한쪽에서는 제가 작업한 음악이 같이 부분적으로 날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온 곳은 방조제 근방에서 제가 녹음한 소리들, 고기가 죽어있는 곳에서

“What I wanted to express in the exhibition hall was how sounds are created with air pressure changes. Although such changes can be delivered to the ears, they cannot be felt on the skin. I wanted to express well the site-specific nature of the sounds I recorded at the Saemangeum land reclamation site. On top of that, if the sound is expressed through a large paper and not an existing speaker, because it is a device not used before, people may think the sound comes from the speaker. I hope this expressive aspect of my artwork is shown well.”

녹음한 물이 방조제에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하루 두 번씩 물을 통과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녹음한 소리, 특히 거기에서는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해서 갈매기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녹음기를 설치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중입니다.

정소영 전시팀장님: 네, 일단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바라는 점? 혹은 기대하는 점? 혹은 관객이 느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윤수정 큐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이어서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158

윤수정 큐레이터님: 우선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다가온 미래> 전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에 대한 탐구를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화두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또 감각들에 대한 차이, 그리고 전시를 보는 방식 그런 것들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아람 작가님께서 워크숍 과정에서 해주신 말씀 중에, “공간을 몸에 새긴다.”라는 문장을 얘기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전시가 그냥 시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을 그 물성을

직접 촉각적으로 느끼는 감각도 있다고 보여지고, 작가님께서 이번 전시에서 그런 감각들을 전시장 안에서 다 펼쳐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안에서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 촉각이 어떤 식으로 시각에서 촉각으로 전이될 때 상상력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객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객이 온라인 전시, 오프라인 전시 모두 다 참여하면서 한 작품 안에서 어떤 감각들이 계속 그 주변부에 스스로 있는지에 대한 느낌, 그런 것들의 감상을 조금 얻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온라인 전시와 비대면 전시가 이어질 때, 어떤 성찰과 반성,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느껴졌고요,

날씨 작가님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당연히 헤드폰이나 스피커라는 이런 매질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될 테지만 전시장에 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압력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종이의 떨림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좀 더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과 촉각적인 감각도 전시장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오프라인 안에서의 감각의 차이들을 기민하게 작가들이 준비한만큼 관객들이 잘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것이 모두가 아우려져서 저희 전시 기획의 의도도 참여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9

“Curator Yoon Sujung: The online and off-line formats are much talked about, but I thought they could naturally lead to the question of how exhibitions are seen and differences between each sense, as well as discussions on the material and nonmaterial. Artist Rahm Parc mentioned “engraving space on the body” during the workshop, which means that although exhibitions are seemingly seen visually only, their material properties can also be felt through the sense of touch. The artist seems capable of showing these senses at the exhibition. The properties of matter will be visible in the off-line exhibition hall but be all the more visual in the online space. I thought it would be nice if the audience could feel the imaginative power that develops when the visual is transferred to the tactile sense. I wanted the audience to participate both in the online and off-line exhibitions and realize how some senses exist inside and around an artwork, such that when they are transferred to the online and non-face-to-face exhibitions in the future, they make us reflect and self-examine. I think I can talk about artist Nalsea along the same line. In the online space, we naturally get to hear sounds through headphones and speakers, but once at the exhibition hall, we may feel the air pressure she mentioned or see the shaking of the paper. That is, we will be able to feel the sounds not only through the auditory sense but also through the visual and tactile senses. That is why, just as the artist astutely prepared the sensual differences in the online and off-line spaces, I hope the audience can also feel them well. Furthermore, I hope all these elements would harmonize to deliver the exhibition’s intention to the participants well.”

정소영 전시팀장님: 수정 큐레이터 말에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미술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감각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예전에는 시각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근데 전시장에 와서 작품을 봤을 때는 그 시각적인 것 외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바이러스처럼 분명 존재하지만 말로써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무드라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무드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와 있는 그 시간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전시장만이 줄 수 있는 공간성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현장성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현장성에 대한 것을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관람객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과거에 사실 오프라인만 경험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 경험 자체를 삭제하거나 축소시켰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자기 검열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전시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것은 가장 큰 포부이고, 그냥 이 공간에 오는 관람객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관람객들이 각각의 다 전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획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날씨 작가님 먼저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혹은 관람객이 느꼈으면 하는 바, 혹은 작가로서 말하고 싶었던 바,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작가님: 저는 제가 감히 작품을 감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보는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제가 작가
노트에 썼듯이 작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면서 갖고
있었던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이제 작가 노트에
어느 정도 적혀 있으니깐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면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62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스피커를 선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스피커보다 확실히 음질이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확실히 좋은 사운드를 듣겠지만 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잡음이 섞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영 전시팀장님: 박작가님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아람 작가님: 회화라는 매체가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매체라고 가정하고, 오늘의

원근법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일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시대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논리들을 반영하면서도 거기에 종속되지 않을
몸과 마음의 공간을 열어 놓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바다 속을 장치 없이 수영하는 것처럼, 저의
그림들이 시공간을 무한히 펼치고 배열해나가는 자유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집과 집 사이를 흐를
그림들을 연결해가며 봐주시는 관객이 있다면 또한 무척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래가 지금을 기억하듯,
다가올 Blue를 생각합니다.

정소영 전시팀장님: 네, 말씀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아람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63

김지수

김지수 작가는 후각 기억과 상상력에 기반한 작업을 진행한다. 작가는 비대면 일상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에서 향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후각에 연결된 공감각적 심상에 집중하며 기억의 향,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향, 언어를 통해 상상되는 가상의 향을 전시장과 온라인 공간 안에 흩뿌린다. 이번 김지수 작가의 작업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향’으로 교감하는 작품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안솔지

안솔지(b.1990)은 이주로 인해 생성된 파편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리고 보기 쉽게 재단되는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료삼아 다양한 설치 작업을 전개한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그릇으로써의 신체, 반대로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 인간을 분류하는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신체라는 양가적인 두 면모에 관심이 많다. 상황과 사건같은 외부적 요소들을 추적하여 아픈 상태의 신체는 생존을 위한 전략만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 낸 시스템 상의 분류 체계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과연 효과적이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이렇듯 정상성과 보편성을 나누는 신체적 경험을 투명하고 단단한 물질로 치환하고 드로잉과 이미지들을 곁들여 시각화한다.

개인전으로 «풀 풀 풀- 향»(2019, 아트 스페이스 휴, 파주)와 «풀 풀 풀- 더듬어 가는 냄새»(2018, 통의동 보안여관)를 진행했으며, «송은미술대상전»(2021, 송은, 서울), «너랑나랑__»(2021,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과천), «보존과학자 C의 하루»(2020,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자신의 이주 경험들을 가상의 캐릭터 'Z'에 투영시켜 반-소설적 텍스트 ('다형적 상처', 2019-20) 를 집필,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Z의 몸을 주체적인 영역으로 되돌리는 공간들을 다양한 설치 작업('소독방', 'Naked', '실험실'의 공간 3부작)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개인전 «담을 수 없어, 뿔어져 나오는»(2021, 아트 스페이스 보안 2)와 «진공-된 몸 PHASE 2»(2020, 쉬프트), 그 외 다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날씨

2003-2009년 동안 밴드 아콤파와 캐비닛 싱얼롱즈에서 활동했다. 한동안 솔로로 활동하며 2015년 솔로 앨범 <빙하기>를 발매했고, 2017년 디지털 싱글 <Walking Downwind>, <Wandering Navigator>를 발표했다. 여다함<기체, 액체, 고체>, 로와정<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정재경<어느마을>, 최윤석<살아야한다>등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업에 음악과 사운드 제작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아람

박아람은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회화 이외의 매체를 통해 회화를 탐구해왔다. 이후 작업에 앞서 표나 스코어 등을 그리는 습관을 바탕으로 다시 회화에 주력하며, 색을 행렬의 색인으로 사용하는 특유의 질서를 통해, 한낱 데이터가 되지 않을 등록 불가능한 시공을 그린다.

개인전 블루, 블루 (더레퍼런스, 서울, 2021), 타임즈 (금호미술관, 서울, 2020), 롤 앤 릴: 2008-2019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9), 에이포트레이트 (위켄드, 서울, 2017), 질 량 형 (갤러리엠, 서울, 2016), 자석 올가미 측량 (케이크 갤러리, 서울, 2014) 을 개최하였으며, 퍼포먼스로 프로젝트 콜 (0-2-1-3.xyz, 2020-2021), 콜 (퍼폼2019 -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 콜 (퍼폼2017 - 보안책방, 서울, 2017), 작도 연습 (2014-2016) 등을 선보였다.

음악의 활동으로는 2010-2011년 이천 콩세알과 2014년 동강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2018-2021년 전시 작품 제작 및 공간 설치 팀 '무진동사'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또한 그룹전 걱정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기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2021), 젊은 모색 202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1), 하나의 사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가능한 최선의 세계 (플랫폼엘, 서울, 2019), 유행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2018), 우주 생활 (일민미술관, 서울, 2015) 등에 참여했다.

| | | | |
|-------------------|-------------------|--------------------------|-------------------------|
| 기간 | 주최.주관 | Period | Host |
| 1부 2021.7.15-8.21 | (사)캔 파운데이션 | Part1 2021.7.15-8.21 | CAN Foundation |
| 2부 2021.8.31-9.25 | | Part2 2021.8.31-9.25 | |
| 장소 | 후원 | Venue | Sponsor |
| 오래된집 | 문화체육관광부 | Old House | Arts Council Korea, |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6, Seongbuk-ro 18-gil, | ARKO Selection |
| 18길 16) | 시각예술창작산실 | Seongbuk-gu, Seoul) | Visual Art, Ministry |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 of Culture , Sports and |
| | | Artist | Tourism and Korea Arts |
| 참여작가 | ISBN | Part1 | Management Service |
| 1부 김지수, 안솔지 | 979-11-973541-5-1 | Jeesoo Kim, Soljee Ahn | ISBN |
| 2부 박아람, 날씨 | | Part2 | 979-11-973541-5-1 |
| | | Rahm Parc, Nalsea | |
| 기획 | | Curator | |
| 정소영 | | Soyoung Chung | |
| 글 | | Text | |
| 김성희, 정소영, 윤수정 | | Sunghee Kim, Soyoung | |
| | | Chung, Sujung Yoon | |
| 디자인 | | Design | |
| 신덕호 | | Dokho Shin | |
| 사진 | | Photo | |
| 서스테인 워크스 | | Sustainworks | |
| VR | | VR | |
| eazel | | eazel | |

이 책은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번역되었습니다.
 This book was published with the support of "2021 ARKO Selection Visual Art"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his book is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www.can-foundation.org

더 가까운 미래. DPPROW

this is tomorrow

다가오는

미래:

orrow

this day

is tomorrow

tomorrow